

치 사

생명의 기운과 함께 구도의 열정이 성취를 이루어, 모두에게 희망의 봄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4년, 각고의 노력으로 영광스런 졸업을 맞이하는 학인스님에게 축하와 더불어 앞으로의 정진에 깊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항상 학교발전과 승가교육구현을 위해 헌신을 다하시는 총장 원행스님과 교수님, 그리고 후원을 아끼지 않은 많은 동문스님과 사부대중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어느덧 중앙승가대학교는 종단의 기본교육기관으로서 전통과 현대학문을 겸비한 최고의 승가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의 자부심이면서 사부대중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이루게 하는 소중한 노력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중앙승가대학은 우수한 교육인력과 전통교육이라는 충분한 역량을 통하여, 학교를 넘어 종단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종단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모두의 원력과 실천으로 교육의 의미가 승가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를 향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약의 한 걸음을 걷고 있는 여러분은 종단과 사회로부터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이라는 기대를 진중하게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한 순간도 수행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포교와 복지, 그리고 사회문화적 역할에도 정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간의 수행과 원력을 바탕으로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한편으로 일체생

명을 위하여 헌신하는 대승보살의 행원으로써, 인류에게 평화와 행복을 안 내하는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어느 곳에서 정진하더라도 몸과 마음이 부지런하여 언제나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랜동안 종단과 사회의 경계없이 지혜의 덕화를 실천하시고 후학을 지도하시며, 수승한 귀범으로 계시는 월주스님과 성우스님께 명예로운 학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공경으로써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이는 학교로써도 큰 영광이라 할 것입니다.

학위 수여를 축하하기 위해 뜻 깊은 오늘을 함께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새 출발의 장도에 나서는 스님들의 앞길에 지혜의 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성취가 사회 곳곳의 웃음과 행복으로 친절하게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0(2016)년 2월 26일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